

‘4대강 살리기’와 새로운 지역발전

- 국토 수공간 연계형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임 -

김동주(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장), 심우배(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)

한강, 금강, 영산강,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재생 촉진 등을 도모하고, 도농통합·상생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토 수공간 연계형(Water-Spatial Synergy)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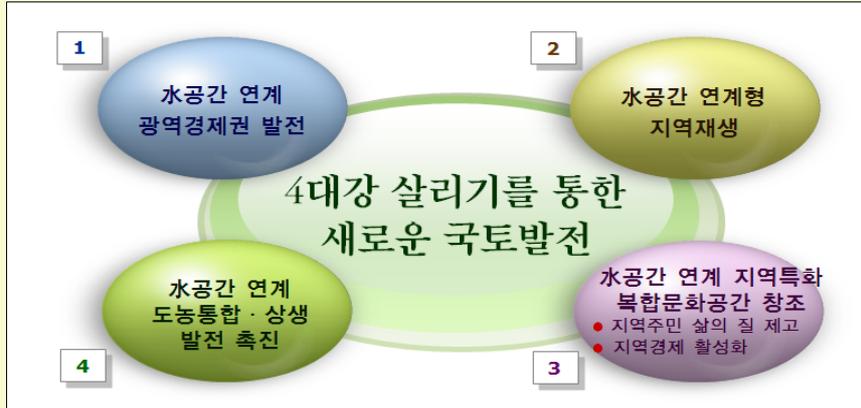
4대강 살리기는 적어도 네 가지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새롭게 촉진

- 1 4대강 살리기는 수공간 연계 광역경제권 발전 촉진
 - 광역경제권 내외에 행정구역 간 공유되는 4대강 지역의 수공간발전과 투자활성화 및 강(江)별 5수(利水, 治水, 豊水, 淸水, 親水) 확보로 지역발전 견인
- 2 수공간 연계형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
 - 수변공간과 연계된 도시 및 농산어촌 재생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 마련
- 3 수공간 연계 지역특화 복합문화공간 창조
 - 강(江)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·레포츠·여가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발전 도모
- 4 4대강 연계 농산어촌지역 경제활성화로 도농통합 및 상생발전 촉진
 - 강변 연계 농산어촌 발전 종합 지원을 통해 내륙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

※ 본 자료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, 2009.6.8.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.

- 한강, 금강, 영산강,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는 홍수방지, 수자원 확보, 재해방지, 환경 복원 효과뿐만 아니라,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대강 유역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
- 4대강 살리기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음(그림 1 참조)

[그림 1] 국토 水공간 연계형 새로운 국토발전 구도



1. 水공간 연계 광역경제권 발전: 광역경제권 내외의 지역 간 공유자원인 4대강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

- 4대강 살리기는 전국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 지역발전 효과 창출
 - 4대강이 지나는 유역은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강(江)살리기의 혜택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 가시화
- 4대강은 낙후된 내륙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이들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
 -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직접연계사업으로 포함된 섬진강지역 및 주요 지류의 인근 지역도 지역발전의 기회
- 광역경제권 내외에 행정구역 간에 공유되는 4대강 지역의 水공간발전과 투자활성화 및 강별 5水^{주)} 확보로 지역발전 견인

주) 5수기능이란 ① 이수(利水, 강물을 생활용수, 산업용수, 농업용수 등으로 적절히 이용함), ② 치수(治水, 홍수를 예방함), ③ 풍수(豊水, 강물이 풍족하도록 함), ④ 청수(淸水, 강에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함), ⑤ 친수(親水, 강과 사람이 친화할 수 있는 건강, 문화 기반을 마련함)를 말함.

2. 수공간 연계형 지역재생 : 4대강과 연계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

- 수변공간 및 수질 개선 등으로 정주환경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 마련
 -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인재와 기업은 지역의 정주환경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하는 경향
- 수변공간과 연계된 도시 및 농산어촌 재생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 마련
 - 도시의 구도심 재생을 강살리기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지역투자 효과 배가 및 시너지 효과 거양
 - 수변공간을 레크리에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리모델링의 중요 공간으로 개발
 - 향후 지역발전에 필요한 선도기능을 강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 적극 유치하여 수변지대는 새로운 도시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대두
- 수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시에 특성화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리버프론트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창출계기 마련
 - 관광자원 개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·장소성을 반영한 수변형 지역 랜드마크 조성
 - 공공청사·박물관·미술관 등 공공·문화시설을 수변에 배치하여 수변지역 공공성 증대
 - 수변공간 랜드마크 및 문화시설을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‘수변공간 역사문화벨트’ 조성 가능

3. 수공간 연계 지역특화 복합문화공간 창조 : 4대강 연계 지역특화 복합문화공간 창조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- 강(江)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발전 도모
- 강(江)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친환경적 자전거길 설치(1728km)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적 지역발전 촉진
 - 자전거길과 생태탐방로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 계기 마련

[그림 2] 4대강 살리기와 다양한 여가, 레포츠 활동 공간의 활용



자료: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, 2009.6.8.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.

- 산책로, 인라인스케이트,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, 캠핑장, 휴게시설 등 레포츠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촉진

- 울산 태화강 사례: 하천수질 개선과 물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강을 활용한 자전거길, 산책로,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강변을 따라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
- 일본 기타큐슈시 무라사키강, 나고야시 호리강 사례: 수질정화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하천문화공간 창출을 통해 주변지역 유입관광객 증가, 경제활동 활성화

- 도심과 강(江)의 수변공간 접근성 개선으로 수변지역 경제활성화 촉진

4. 水공간 연계 도농통합 · 상생발전 촉진: 水공간 활용 농산어촌지역 경제활성화로 도농통합 · 상생발전 촉진

-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지역의 강변관광문화(리버투어리즘)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
- 내륙 · 강 · 바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강변문화 기반 조성
- 체험루트 및 숙박시설을 연계한 역사문화생태 탐방 리버워크 조성
- 녹색관광마을, 에코관광마을 등 水공간 연계 My Town 만들기

- 지역주민과 외국관광객이 함께 하는 강별 대표축제 개발(새로운 강변가요제, 강변 문화제, 강변전시회 등)

● 4대강 특성화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의 교두보 마련

- 패키지형 4대강 특화문화관광 거점 조성
 - 4대강 인접·배후지역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활성화 도모
 - 4대강별 브랜드화 전략에 맞춘 특화개발로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계기 마련

[그림 3] 4대강별 지역특성화 브랜드는 지역특화 발전 동인



자료 :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, 2009.6.8.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.

● 지역특성을 살린 강변지역 역사문화자원 복원·정비, 새로운 지역 문화관광콘텐츠 확충

- 유역별 특화된 문화유적 정비로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
- 전통 마을숲 복원 및 전통가옥·종가 문화의 전승·개발
 - 담양 관방제림, 예천 금당실 송림, 의성 사촌리 가로숲 등
- 4대강 인근 역사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역사古都(고도)벨트를 조성하여 지역문화·경제활성화의 새로운 계기 마련
 - 금강살리기와 공주·부여, 낙동강살리기와 안동·상주 등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개발효과 극대화

● 강변 연계 농산어촌 발전 종합 지원을 통해
내륙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

- 4대강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농산어촌지역 경제발전 촉진
- 강변과 연접한 농산어촌지역에 선진적 생활환경 개선 및 新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한 집중 지원으로 新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발전계기 마련
- 4대강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지역의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농산어촌지역 부가가치원으로 특화개발
- 4대강 주요 농산어촌지역의 명품마을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향토음식, 전통·문화자원, 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체험·휴양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강화
- 4대강 인근의 새로운 농업모델단지 내 마을은 도시로부터의 귀농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전원 뉴타운 개념으로 개발
- 4대강 인근 지역에 IT, BT, ET 등 첨단기술, 경관농업, 식품·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산어촌지역의 글로벌 新수출기반 조성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 강화

- 4대강 살리기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재생 촉진 등을 도모하고, 도농통합·상생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토 水공간 연계형(Water-Spatial Synergy) 새로운 지역발전과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수 있음

●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장 (djukim@krihs.re.kr, 031-380-0245)

● 심우배 국토연구원 녹색국토·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(obsim@krihs.re.kr, 031-380-0251)